

소득공제부터 시장 할인까지... 카드사, 추석 마케팅 '열일'

신한·KB국민, 온누리상품권 론칭 삼성, 이마트·홈플러스 등과 제휴 롯데, 롯데마트서 선물구매시 혜택 농협, 농협몰 최대 20% 즉시할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 준비에 카드사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전통시장 공략부터 유통사와 협업까지, 카드 혜택에 따라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카드사들은 관련 이벤트에 한창이다.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 백화점까지 명절 관련 상품 구매 혜택을 통해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명절 대목을 앞둔 마케팅이 뜨겁다.

소비자 또한 연일 치솟는 물가에 주머니 부담을 덜어줄 카드를 찾고 있다. 소비 장소에 맞는 카드를 사용해야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경우 온누리 상품권 이용한도를 증액하는가 하면 유통사와 손잡고 협업에 나서고 있다. 방식도 다양하다. 특히 이달부터 온누리 상품권 론칭에 나선 카드사도 있어 소득공



추석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전통시장 혜택 등 마케팅에 분주하다. 지난 1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뉴스1

제부터 구매한다, 할인율 인상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들마다 마트,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이 달라 본인인 가진 카드사의 혜택을 조금만 따져보면 손쉽게 주머니 사정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달 온누리 상품권 론칭에 나선 곳은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다.

신한카드는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류 상품권 뿐 아니라 실물 카드결제 방식을 채택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소득공제 40%를 받을 뿐더러

신한플레이 앱으로 페이 결제도 가능하다. 특히, 기존 종이 상품권의 할인율은 5%에 구매한다 월 70만원이었지만 카드상품권은 할인율 10%를 적용한다. 이어 9월 한달 동안 추석 명절을 대비해 충전금액 또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KB국민카드도 이달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시작했다. KB페이와 연동 가능하며 상품권 구매시 10%할인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마찬가지로 40% 적용한다.

유통망을 활용한 이벤트도 진행한

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명절선물세트와 농·수산물 구매시 할인 혜택을 적용해 장바구니 물가를 덜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카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와 제휴했다. 이달 10일까지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에서 행사상품 구매시 금액에 따라 상품권 증정 또는 즉시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어 홈플러스에서는 오는 11일까지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상품권 증정과 즉시할인 중 원하는 항목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사은품과 할인의 한도는 50만원이다.

롯데카드는 이달 12일까지 롯데마트에서 추석 선물세트 행사상품 구매시 최대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어 일부 행사상품은 100만원 이상 구매할시 100만원 당 5만원을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거나 즉시 할인해 준다. 최대 한도는 50만원이다. 같은 혜택을 홈플러스에서도 11일까지 받을 수 있다.

농협카드는 전통시장 공략에 나선다. '추석에 전통시장 가올래(來)' 이벤트를 내달 31일까지 두달간 진행한다. NH농협카드 총전신 카드인 온누리상품권 이용시 합산 이용액 가중치 3배를 적용해 추첨권을 부여한다. 추첨을 통해서만 안마의자, 로봇청소기, 1만원 캐시백 등을 증정한다. 추가로 자사 유통망인 농협몰에서는 6일까지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 선물세트 등 인기 행사상품 결제 시 최대 20% 즉시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명절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추후 이벤트를 지속해 기존 고객 지키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케뱅, 수익 안정화 성공... 업비트 의존도 ↓

상반기 순이익 457억 '역대 최대' IPO 임박... 남은 과제 '고객 증대'

케이뱅크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의존도에서 벗어나 자체 성장에 성공했다. 수익 안정화에 성공한 케이뱅크는 상장을 앞두고 고객 증대에 집중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 4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225억원)의 2배를 넘는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84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흑자전환과 함께 큰 폭의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케이뱅크의 이번 실적에서 놀라운 점은 업비트 의존도를 벗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케이뱅크는 가상자산 열풍이 불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면서 비이자이익을 크게 증가시켰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 225억원 중 대부분이 업비트 수수료 수익으로 수익 안정화가 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인상 영향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수

익 안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케이뱅크 비이자이익은 4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85억원) 대비 약 50%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케이뱅크가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5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의존도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반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상반기 매출액은 785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91억원) 대비 61.3%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5661억원, 172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9.7%, 88.2% 급감했다. 두나무는 2분기에만 34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업비트 거래 수수료로 수취해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시세 하락으로 가상자산평가손실이 증가한 것이 당기순이익 감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업비트 의존도가 많이 사라진 상태로 이제는 안정적인 자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케이뱅크의 남은 과제는 고객 증대와 월 이용자 수

증가다.

지난해 말 717만명이었던 케이뱅크의 고객수는 상반기 말 783만명으로 66만명 늘었다. 지난해 말 7조900억원이었던 여신은 상반기 말 8조7300억원, 같은 기간 11조3200억원이었던 수신은 12조18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미 상장에 성공한 카카오뱅크와 이용자 수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상품과 플랫폼 개선을 통한 고객 증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케이뱅크 고객수는 783만명으로 경쟁 업체인 카카오뱅크(1938만명) 대비 약 1200만명 낮다. 월 이용자 수(MAU) 역시 카카오뱅크(1319만명)에 뒤진 261만9000명으로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여·수신 규모가 증가했어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적기 때문에 성장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성장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상장을 앞둔 회사인 만큼 고객들의 실질적인 이용자 수가 많아져야 한다"며 "신사업과 플랫폼 개선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광주은행, 정규직 신입행원 공채 스타트

광주은행은 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정규직 신입행원 공채를 실시한다.

채용 규모는 20여명으로 모집분야는 중견행원(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과 초급행원(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으로 나눠 모집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채 방식으로 지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NCS, 일반상식, 인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중견행원에 대해 지역인재, 일반인재, 디지털·IT, 통계·수

학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초급행원에 대해서는 디지털·IT 분야를 모집한다.

이 중 지역인재 및 디지털·IT 부문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하고, 일반인재 부문은 출신학교 지역을 구분하지 않으며, 통계·수학 부문은 관련 학과 전공자 대상으로 지역인재와 일반인재를 구분해 채용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권준학 NH농협은행장(오른쪽 첫번째)이 강원도 원주시 소재 ㈜비알팜을 방문해 김석순 ㈜비알팜 대표이사의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농협은행

권준학 농협은행장, 추석맞이 中企 방문

㈜비알팜 찾아 애로사항 등 청취

권준학 농협은행장이 추석맞이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NH농협은행은 추석맞이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소재 의약품 제조업체인 ㈜비알팜을 방문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방문한 ㈜비알팜은 세포재

생활성물질을 사용해 의약품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화장품 등 또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권 행장은 "㈜비알팜의 재생의학 연구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길 기원 한다"며 "농협은행도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우리금융그룹, 기후위기 극복 공모전

우리금융그룹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와 함께 미래세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동네 1.5℃ 낮추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전은 올해로 2회차를 맞이했다.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미래세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

법이나 제도 개선, 사회적 제안, 홍보 캠페인 등의 방법을 자유영상 또는 아이디어 분야로 나눠 접수받는다.

공모자격은 만 7세부터 18세까지이며, 전국 초·중·고 재학생 및 청소년 누구나 개인 또는 팀(5명 이하)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작품은 본인 SNS에 필수태그(#기후위기극복#우리동네온도 낮추기)와 함께 업로드하고 게시물의 웹페이지 주소와 기본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월 19일까지다. /이승용 기자